

가을 단풍철 정읍시 시티투어버스 인기

12월까지 사전 예약제 운영

내장산·무성서원 등 관광객 북적

본격적인 가을 행락철을 맞아 전북 정읍시가 운영 중인 '시티투어버스'가 관광객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정읍시는 시 홈페이지 문화관광(여행가이드) 코너를 통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는 시티투어를 오는 12월 말까지 운행한다고 밝혔다.

시티투어는 지난주 내장산 단풍의 절정을 맞아 서울과 충남, 전남 등 다양한 지역에서 온 관광객들이 이용하며 정읍의 우수한 자연환경과 맛을 즐겼다.

만산휴업을 이룬 내장산국립공원에서 가장 곱고 아름다운 절정의 단풍을 구경하며 가을 정취에 취했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무성서원 방문 시에는 동행한 문화해설사를 통해 정읍의 역사와 관광지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전국 유일의 전통 쌍화차거리에서 맛본 진한 쌍화차는 관광객들의 여행피로까지 풀어주기에 충분했다.



정읍시 운행 시티투어버스 탑승객들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무성서원을 방문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했다.

시티투어의 1인당 이용요금은 성인 5000원, 군인·청소년 3000원, 어린이 2000원이며 관광지 입장료와 체험비용, 식비, 여행자보험료 등은 이용

자가 부담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정읍 시티투어 코너와 시청 관광과, 정읍역 종합관광안내센터 등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전북교육청, 학원책임보험 보상한도 늘린다

1인당 1억→1억5000만원 상향

전북교육청이 학원책임배상보험 보상한도를 1인당 1억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학원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전북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전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10일부터 공포·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사회적으로 안전에 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원책임보험 배상 금액을 상향 조정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는 학원책임배상보험 보상한도를 1인당 1억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독서실 업종 등록 시 남녀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열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 하게 돼 있는 규정을 삭제한다. 남녀 혼선이 일반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학원 교습 과정 등록 시 시설기준도 완화된다. 학원에서 두 개 이상의 교습 과정을 등록할 경우 각각의 교습 과정에 필요한 시설면적을 모두 충족

해야 하나 임시·경정 및 보습 분야 학원은 두 개 이상의 교습 과정 운영 시 큰면적 기준만 갖추면 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와 함께 대상자별로 구분돼 있지 않은 기존의 행정처분 기준을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로 세분화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 현장에서 필요한 행정처분 기준의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행정처분 규정을 일부 신설한 것이다.

특히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관련 위반 사항(범죄경력 조회 미실시 및 채용)에 대해서는 기존의 과태료 부과에 등록말소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가 학원 등에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해당 규정은 보험 갱신일이 도래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강 전북도교육청 창의인재교육과장은 "이번 조례·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사용자에게는 더욱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운영자의 사업 운영 부담은 완화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시 지역화폐 100억원 어치 추가 발행

고금리 고통 소상공인에 큰 도움

남원시가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10% 할인 금액으로 판매하고 있는 '남원사랑상품권'을 100억원 추가 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시가 당초 계획했던 남원사랑상품권 발행액은 1100억원, 하지만 구매액이 늘어나면서 예산이 조기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물가 급등에 따른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돼 10% 할인혜택이 있는 상품권의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추경을 통해 100억원 추가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 시민들이 연말까지 상품권을

구매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의 발행 규모 확대와 함께 상품권의 가맹점과 이용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3349개였던 가맹점은 현재 3715개로 11%가 증가했고 지류상품권 이용자는 1만7089명에서 2만7121명으로 59% 증가했으며 카드·모바일 상품권 이용자는 3만534명에서 4만170명으로 32%가 증가하는 등 시민들의 호응이 크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남원사랑상품권은 고금리, 고물가로 힘든 시기에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지역 내 소비 촉진으로 골목상권을 살려 많은 소상공인이 살아나고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

고창군 농업인의 날 행사 1500명 참석 성황

추수감사제·유공자 표창

고창에서 농업인단체 고창군협의회가 주관한 '제25회 농업인의 날' 행사가 열렸다.

고창군은 9일 고창군립체육관에서 지역 농업인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 가능한 농업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농업인의 날 행사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기념식은 풍년농사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제를 시작으로 지역 농업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로 고창군 4·H연합회 이상환 회장을 비롯한 14개 읍면 농업인 등이 군수 표창과 군의장상을 받았다. 농업발전 유공 공무원과 농업 유관기관에는 농업인단체협의회회 공로패가 전달됐다.

특히 '11월11일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퍼포먼스를 위해 11m원형으로 기념식 커팅식이

열려 눈길을 끌었고 가루쌀밥 시식, 벼 품종 다양화를 위한 품종별 밥맛 평가도 진행됐다.

또 청년농업인의 성공모델 평가회, 토종농산물 홍보, 고창 식재료를 활용한 읍면별 요리전시, 떡메치기 체험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농업인 한마당잔치를 장식했다.

농업인단체 고창군협의회 최중엽 회장 "오늘 행사는 농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격려하고 화합하는 자리"라며 "모든 농업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어려운 농업 현실을 헤쳐나기"고 했다.

노형수 부군수는 "어려운 농업현장에 힘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다각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농업인으로서 자긍심과 희망을 갖고 농업현장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고창군의 올해 공공비축미 수매가 진행 중인 가운데 심덕섭(가운데) 군수가 지난 8일 고창을 월산창고 수매현장을 방문, 진행 중인 건조벼 품종검정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고창군 제공>

고창군 올해 공공비축미 8155t 수매

심덕섭 군수 "농업인 수고에 감사"

고창군이 공공비축미 수매에 나섰다. 올해 고창군 공공비축미 총 매입량은 8155t, 이중 산물벼는 2454t이며, 건조벼는 5701t이다.

건조벼 물량에는 올해 처음으로 매입하는 가루쌀 294t과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참여농가 인센티브 물량 301t이 포함돼 있다.

산물벼 매입 품종은 '신동진'으로 관내 농협 RPC와 DSC를 통해 11월 말까지 매입하고 건조벼는 오는 28일까지 읍면 26개소에서 '신동진'과 '수광' 품종에 한해 매입이 이뤄진다.

공공비축미 수매에 참여하는 농가는 품종검정 제도에 따라 출하농가 중 5% 정도를 표본으로 선정, 시료를 채취해 검정한다.

그 결과에서 정부가 정한 매입대상(신동진, 수광) 외 품종이 20% 이상 혼입된 것으로 나오면 내

년부터 5년간 공공비축미 매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매입품종 확인 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통계청이 조사하는 수확기(2023년 10~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조곡(40kg)으로 환산해 결정된다.

농가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입대금 중 수매 즉시 포대당 3만원의 중간정산금을 지급받고 나머지는 전국 평균 쌀값이 정해지면 이를 기준으로 정산한 뒤 차액이 지급된다. 지급은 12월31일까지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양질의 쌀을 생산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주시는 농업인들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매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 등 관련 기관에서는 긴밀하게 협조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정읍시 아동전용병동 설치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순조 내년까지 아산병원에 개실

정읍시의 민선 8기 핵심공약 사업인 '소아외래진료센터 및 어린이 전용병동 설치사업'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정읍시는 오는 2024년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비롯한 지방비 22억원을 들여 정읍아산병원의 강당과 병동 일부를 리모델링해 소아외래진료센터와 어린이 전용병동을 설치할 계획이다.

소아외래진료센터와 20병상 규모의 어린이 전용병동은 24시간 소아환자에게 필수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응급의료시스템을 구축해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구성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정읍뿐만 아니라 도내 서남권지역 소아환자의 의료 접근성이 높아져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보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역소멸 위기 대응 중점 시책으로 아이 낳고 살기 좋은 환경 만들기 에 주력하고 있다.

출생아에게 200만원에서 1000만원의 출생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 시책과는 별도로 자체 예산 24억원을 들여 0~59개월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의 육아수당도 지급하고 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아동 의료기관 구축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인구유입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링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중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중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집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고효율 STS membrane 봉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1997 테린인더스트리㈜ 법인설립
2011 수출백만불팀, 수출유공자 수상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유망중소기업인)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2023 국제형 모범납세자 표창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선
테린인더스트리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갈라강판 지붕공사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옥상스틸방수

전문주택신축

공장신축

전문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MD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광역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3층 공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